

# 전남대·조선대병원 마취과전공의 전원 이탈 ‘수술대란’

### 수술 건수 평소 절반 이하로 줄어...예약도 안돼 환자들 불만 전문의들 “새벽까지 수술해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행동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수술대란’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응급수술이 진행되는 상급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수술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전원 이탈했기 때문이다.

당장 남아있는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응급수술이 몰리거나 전문의의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수술실 가동 중단 사태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2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전 두 병원에서 하루 평균 120~150건 진행되던 수술이 이탈 후 절반 아래인 55~65건으로 감소했다.

경증 수술의 경우 수술일정을 최대한 연기하는 등 수술 일정을 절반 이하로 낮춰 중증·응급 환자에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수술을 연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마취과 전공의 전원인 사직서를 냈기 때문이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 병원에서는 각각 12명의 마취과전공의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마취과 의사는 수술의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현장을 관리하며 환자 상태를 체크하는 수술 핵심 인력이다. 수술에 반드시 필요한 마취약물을 환자별 특성에 맞게 안전하게 투여하고 수술 도중에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우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

취의 없이 수술을 진행하면 환자의 신경과 의식에 문제가 발생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마취과 전문의 공백 사태가 벌어지자 현재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각 10명씩의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을 모두 도맡고 있다.

전남대병원의 한 의사는 “수술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며 “응급한 상황을 골라 우선적으로 수술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이대로 장기간 지속한다면 병원 의료진과 시스템 자체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전남대병원은 총 23개의 수술실 중 전신마취 수술실 4개와 국소마취 수술실 3개 등 7개만 운영하고 있다. 중증·응급 수술이 심아까지 진행되고 있어 마취과전문의의 업무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다.

당장 마취과 전공의 공백에 따른 피해가 두드러진 곳은 산부인과다. 마취과 의사가 담당하는 ‘무통주사’를 전공의가 없어 놓지 못하고 있고, 분만을 앞둔 임신부들은 마취과 의사가 없어 예정 분만일에 제왕절개 수술을 받지 못할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수술지연에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전공의 이탈도 한몫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타 외과수술에 비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수술은 전공의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양 대학병원이 수술 일정을 미루거나 진료·입원까지 줄이면서 환자와 보호자 성토가 거세지고

있다. 김모(36)씨는 전남 신장이 좋지 않아 전남대병원을 찾았지만 전공의 집단행동 때문에 진료할 수 없다며 다음달 18일이나 진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소변조차 볼 수 없는 상황에 결국 동네 의원을 방문한 김씨는 의원의 권유로 급하게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신장 하나가 이미 망가진 상태”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다행히 급히 수술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더 늦었으면 몸 상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며 “어제 바로 수술을 했으면 신장이 관장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친정아버지가 폐암 수술 후 재발해 수술을 해야 하는데 화산 전남대병원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진료 예약조차 잡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대장암 수술 봉합 부위가 터져 전남대병원을 찾았지만 의사가 없어 마냥 대기 중”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광주지역 한 대학병원 교수는 “현재 암 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술방에 배정하고 있지만 수술이 며칠씩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전문의들의 업무가 과중해지면 과로 등으로 인해 의료사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병원들이 환자를 2차병원으로 보내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병원에서 일부 암 수술은 가능하지만 암의 정도에 따라 수술 가능 여부가 다르며 개두술과 같은 복합적인 수술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의료대란이 현실화된 22일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본관 히포크라테스 동상 앞을 환자 보호자가 지나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공의들, 압박에도 요지부동...과거 학습탕?

### 2020년 ‘승리’한 경험 공유 ‘최악의 경우 개원하면 그만’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광주·전남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흘째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연일 강한 압박을 하고 있어도 병원에서 떠난 발길을 돌리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총 376명(전남대병원 268명, 조선대병원 108명)으로, 이 가운데 28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불이행확인서 발급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강행하는 이유는 의사 면허가 자격증이기 때문이다. 의대본과 5년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국가고시를 치르면 언제든지 일반의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악의 경우 사직서가 수리되더라도 개원을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일반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원을 개원할 수 있다. 일반의사로 의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미용 의료 진료도 가능하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심하면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까지 내리겠다며 초강경 대응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들이 지난 2020년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정부와의 갈등에서 ‘승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세대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현재 전공의들은 대체 인력이 없는 탓에 결국 의사가 구제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강대강으로만 싸우면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양측 모두 환자를 생각해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불법의료행위 떠안은 간호사들 “환자 위해 어쩔수 없지만 불안”

### 심전도·드레싱 등 의사 업무 수행 의료법상 불법...“책임 누가 지나”

“간호사들이 의사의 고유영역인 각종 동서서 설명, 심전도 검사, 상처 드레싱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우려됐던 간호사들의 불법의료행위(2월 21일자 광주일보 6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간호사들은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급박하고 도의적으로 외면할 수 없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22일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떠난 상급병원 간호사들이 의사 면허를 소지해야 할 수 있는 의료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간호사들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고 노조 측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광주일보 취재진이 병원에서 만난 A간호사는 “아슬아슬하게 일해왔는데 전공의들이 없으니 의사업무를 어쩔수 없이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처방권한이 없는 간호사들에게 의사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건네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전산상에 처방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B간호사는 “교수와 펠로우(전임의)가 병원에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은 인력만으로 전체 업무를 커

버하기 힘든 상황이다. 의사들이 해왔던 업무가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건 간호사 진료 보조 인력(PA)이라면서 “정부에서도 PA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장에서는 사실상 불법적인 의료 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한 말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혹시나 의료사고가 나면 간호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사 업무 수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전공의 부재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경찰 행세 불법체류 외국인 상대 인질강도 일당 2명 구속

경찰 행세를 하면서 30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불법으로 감금하고 어머니에게 고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암경찰은 30대 A·B씨를 인질강도, 공무원자격을 사칭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밤 9시 10분께 영암군 삼호읍

일대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C(38)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한 시간여 동안 승용차에 감금한 채 “강제출국시키겠다”고 위협해 3만 9000바트(한화 150만 원 상당)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 3자를 통해 C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됐다.

이후 C씨의 어머니에게 인터넷에서 구입한 수갑을 채운 C씨의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강제 출국시키겠다”며 협박했다.

A·B씨는 별도로 갖고 있던 태국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뒤 C씨를 주거지에 내려다 주고 도주했지만, C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지난 15일 검거됐다.

/유연재 기자 yjyou@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